

은퇴설계도 '비대면' 열풍

금융권, 무료 모바일 서비스 앞다퉈 개설... 은퇴 고객 잡기 분주
광주은행 '퇴직연금 시뮬레이션' 月수령액까지 모바일로 '한눈에'
NH농협은행·하나·국민은행 등 금융상품 추천·부동산 상담도

시중은행들 4개월 '눈치 전쟁' 끝 예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예·적금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뒤 4개월 여 만으로 수신금리 인하를 저율질했던 은행들의 '눈치 전쟁'이 끝났다고 풀이된다. 가장 먼저 금리를 내린 곳은 NH농협은행이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12월 예금금리를 최대 0.25%포인트 내렸다. 하나은행도 지난 2일 예·적금 상품 18종의 기본금리를 일제히 인하했다. '하나 원큐 정기예금' (만기 1년)의 기본금리가 기존 1.35%에서 1.10%로, 'N플러스 정기예금' (만기 1년 기준) 1.50%에서 1.25%로 내리는 등

정기예금 7종이 이번엔 0.25%포인트 인하됐다. 적금상품 중에서는 '하나 원큐 적금' (만기 1년)이 1.80%에서 1.50%로, '셀프 기프팅 적금' (만기 1년)이 1.30%에서 1.05%로 조정되는 등 11종이 0.25%포인트 또는 0.30%포인트 내렸다. 신한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신한 주거래 미래설계통장'과 '신한 주거래 S20통장'의 우대 이율을 연 최고 1.50~1.25%로 변경한다. 저축예금의 기본이율은 연 0.20%에서 0.10%로 0.10%포인트 인하한다. IBK기업은행은 'IBK플러스저축예금' 금액에 따라 연 0.10~0.90%로 적용하던 금리를 지난 달 21일부터 0.10~0.70%로, 최대 0.20%포인트 낮

쳤다. 'IBK플러스기업자유예금'의 금리는 0.10%포인트씩 내렸다. 우리은행은 지난 달 10일부터 'WON 예금'과 '위비정기예금' 금리를 내렸다. 가입 기간에 따라 연 0.50~0.95%로 제공하던 WON 예금 금리는 0.50~0.87%로 낮췄다. 위비정기예금 기본금리는 1.40%에서 1.10%로 0.30%포인트 내렸다. KB국민은행도 '국민수퍼정기예금 단위기간금리연동형' (1~6개월) 상품 금리를 0.70~1.10%에서 0.60~1.00%로, 'KB국민UP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1.35~1.50%에서 연 1.10~1.30%로 낮췄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자산운용 전문가를 만나지 않고도 '클릭' 몇 번으로 무료 은퇴자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은행 모바일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온라인·모바일 등을 통해 은퇴자산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사가 운영하는 이 '비대면' 서비스는 급여 정보와 은퇴시기 등을 입력하면 연금 수령 예상액과 맞춤형 상품 정보까지 받아 볼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은행은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해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위해 '퇴직연금교육시스템'을 개설했다. 이곳에서는 은퇴자산 설계에 대한 도움을 받고 퇴직연금 상품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학습과정'이 신설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법정교육을 스마트폰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은퇴 뒤 받을 연금이 궁금하면 광주은행 '퇴직연금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성별과 나이, 은퇴예상연령, 예상기대수령, 월급여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은퇴 때 받을 퇴직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5단계에 걸쳐 연금정보를 얻을 수 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형태의 '은퇴설계 자가진단' 서비스 '올백(A11100 플랜)'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기본정보로 진단한 은퇴자산을 살펴본 뒤 농협은행 은퇴설계 전문가 '올백플래너'를 통해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올백플랜'은 자산관리 컨설팅→양도·상속·증여 등 세무상담→부동산 상담 등 3단계로 구성돼 있다. '내 삶의 올백플랜'에서는 은퇴준비 관련 금융정보와 귀농귀촌 안내 등 다양한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투자기간과 투자금액 등을 입력하면 맞춤형 펀드 상품을 찾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시뮬레이션'도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표준설계와 간편설계로 나뉜 '은퇴설계 계산기'를 마련했다. 은퇴에 필요한 자금과 준비자금, 설계과정을 단독설계와 부부설계로 분리해 도출할 수 있다. 30초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는 '간편설계'에서는 몇 번의 클릭으로 은퇴 필요자금, 준비자금, 여유·부족자금을 알아보고 '나의 은퇴준비율'과 부족금액, 추가 거치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모바일 앱을 통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자산관리샵'을 운영하고 있고 신한은행 '미래설계포유', 우리은행 '시니어플러스', 기업은행 'IBK은퇴설계 연금모아' 등도 관련 서비스를 구축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비대면 외환서비스 확대 23일부터 영업 시간 외에도 가능

광주은행이 오는 23일부터 비대면채널 외환예금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5일 광주은행은 외화예금 비대면채널 외환 서비스를 영업 시간 외인 오후 6시~익일 오전 9시에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외화예금 신규 가입·해지·입금·출금 등 서비스가 해당하며, 비대면채널 서비스는 인터넷·스마트·모바일뱅킹 등이 있다. 이전까지는 영업시간 외에는 비대면채널을 통해 외화예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에 확대되는 영업시간에는 미화 1만 달러 이하 금액만 취급할 수 있다. 이외 외화 환전·송금·국내이체·거래외국환은행지정 이용시간은 광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서비스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본부장 서욱원·오른쪽)는 5일 목포2호광장지점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상담창구를 운영했다. (농협은행 전남본부 제공)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신협, 무이자 신용대출

신협중앙회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신협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 무이자 신용대출 지원 ▲ 기존 담보대출 이차지원 ▲ 공제료 납입유예 ▲ 약관대출 이차 납입유예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게 최대 1년간 1000만 원 이내로 무이자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금리 4%인 '신협 더불어사회나눔지원대출' 가입자는 신협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이자를 전액 지원 받게 된다.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는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연1.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한다. 최초 대출금액 2억원 이내의 담보대출 이용자가 대상으로, 대출 잔여기간(최장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 피해자는 신협 공제료와 약관대출 이차 납입을 최장 6개월 유예받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돕는다

농협 전남본부, 상담창구 개설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가 지역 전 영업점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창구를 개설했다. 전남영업본부는 5일 목포 동부시장 인근 목포2호광장지점에 본부인력을 투입해 소상공인 피해 상담을 지원했다고 이날 밝혔다.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지난 달 전남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특별출연한 뒤 전남신보 보증을 통해 우선적으로 저리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전남신보와 연계, 신속한 심사를 통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방침이다. 전남본부는 농협은행 전남 전 영업점에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위한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서욱원 본부장은 "다른 지역 피해 현황을 감안해 금융지원 방문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동부화재 | KOREAN | SGI서울보증 | AXA | AIG | NH농협손해보험